

인간 중심의 부드러운 행정학

《논어 맹자와 행정학》 펴낸 이문영 교수

나라 살림을 꾸리는 ‘행정’과 동양의 고전인 ‘논어 맹자’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을 듯싶다. 유신정부 이후 80년대까지 세차례에 걸친 해직과 구속에서 “극악한 통치의 실체와 이를 바로잡는 문명의 구도”를 끈질기게 학문의 화두로 삼아왔던 이문영 교수(69, 경기대 대학원장)는 의외로 논어 맹자에서 행정학 교과서의 근원을 찾아낸다.

최근 펴낸 《논어 맹자와 행정학》(나남출판)에는 딱딱한 틀을 벗어난 ‘인간 중심의 행정학’이 담겨 있다. 이미 이문영 교수는 91년에 《자전적 행정학》(실천문학사)을 통해 행정학 속에 인간 고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과 철학을 집어넣은 ‘부드러운’ 행정학을 설명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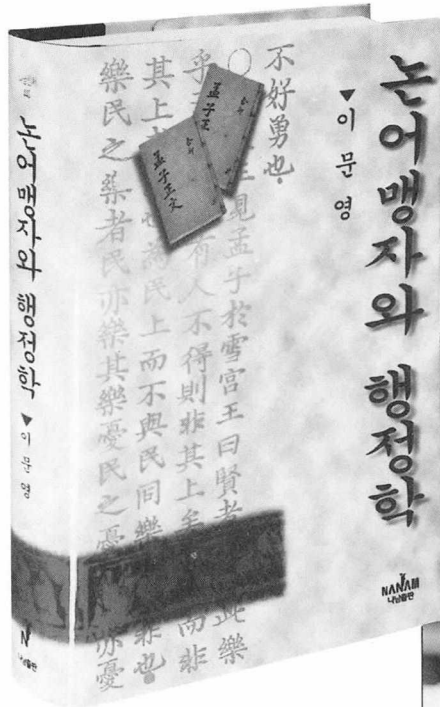
인간됨을 상실하지 않는 조직

“공자와 맹자 자신이 공직에 있었고 관직을 그만둔 후에도 계속 다른 관직에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들의 관심사도 행정부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에 있었지요. 《논어》와 《맹자》에는 인류문명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의 근본 즉, 인간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 이 책의 근본 전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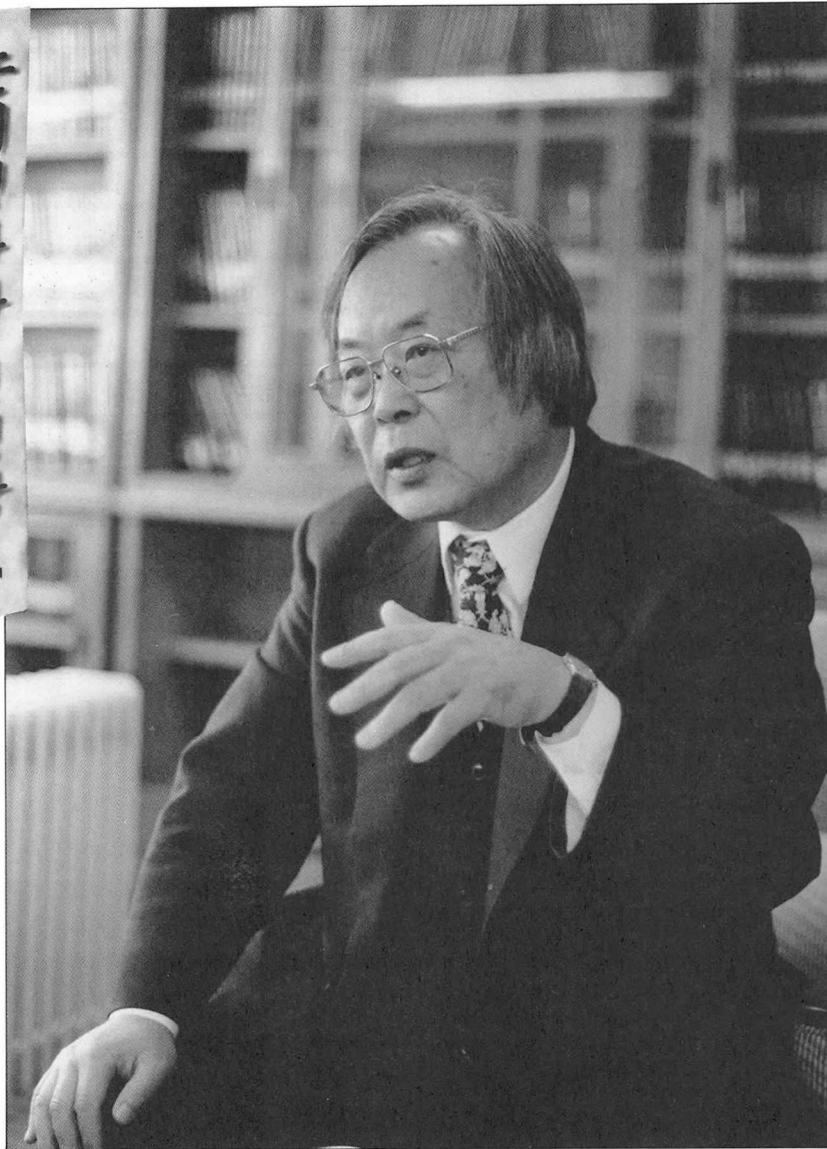
《논어》《맹자》에 비체계적으로 배어 있는 행정학의 일반이론을 뽑아 정리했는데, 756개에 이르는 장·절로 인용된 색인과 주제별 인물 색인의 자료 정리에만 꼬박 8년이 걸릴 만큼 이교수의 분석은 꼼꼼하다.

논의의 출발은 인간이란 정부 관료조직 속에서 원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마련이라는 데서 시작된다. 《논어》《맹자》의 궁극적 관심은 조직구성원이 인간됨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논어와 맹자를 기본으로 한 조선시대에는 관료를 뽑는 과거시험에 행정이나 법률과목을 치르지 않았다. 시문을 잘 짓는 사람을 등용했다. 이를테면 정신성을 부여한 시대였다. 조선시대 정책 목표는 부국강병이 아니라 ‘인(仁)’이었다는 사실도 놀랍다.

이에 비해 오늘날 우리의 행정에는 ‘정신성’이 없다는 게 이교수의 해석이다. 문명과 미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이 ‘삼풍’과 ‘성수대교’ 참사를 빚게 됐다는 날카로운 비판이다.



논어와 맹자에서 행정학 교과서의 근원을 찾는 이문영 교수의 이 책은 인간 중심의 행정학이다. 이교수는 사람을 중시하고 실수가 보장되는 관용성이 있는 조직이 너그러운 문명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공무원을 먼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 합니다. 사람을 중시하고 실수하는 것이 보장되는 ‘관용성’이 있는 조직이 돼야 너그러운 문명이 이뤄질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인성을 풍요롭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지요.”

이교수의 이같은 ‘문명’과 행정에 대한 사고는 ‘미’에 대한 또다른 사유체계로 넓혀진다. 인간이 만든 구축물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정치의 구도가 있다는 것. 모스크바에서 보았던 번쩍이는 별탑의 뒤틀린 위화감과 제네바 레만호의 맑은 물에 서 있던 동상의 아름다움을 그 좋은 예로 든다. 인간주의의 정치, 건전한 정치 속에서 ‘건축물의 아름다움’도 탄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은 체계화돼 건국대학원에서 ‘미와 문명’의 강의로 이어지고 있다.

5년에 걸친 옥중생활에서 이교수는 전공인 행정학에 ‘정신’과 ‘철학’의 생명을 불

야만사회를 문명사회로

어넣을 수 있었다. 달력이 스케줄 하나 없는 백지가 되는 여유로움(?) 속에서 한문과 철학 공부에 매달린 결과가 이 책인 셈이다.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73년 고려대에서 첫 해직된 이후 ‘YH사건’ 서남동 문동환 안병무 이우정 문익환 등의 교수와 함께 주동한 ‘3.1 민주국헌선언’,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교수서명운동’ 등으로 이어진 이교수의 치열한 삶의 방향은 한마디로 폭력에 대한 ‘비폭력저항’으로 요약된다. 그 일관된 운동에서 이교수의 정신을 이끌어온 하나의 기둥은 성서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한 기독교라고 주저없이 말한다. 이교수는

5살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교회에 다닐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하지만 교권주의적인 제도교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판적이다. ●

새로이 구상하고 있는 저술도 <마틴 루터와 행정학>이라는 주제를 잡았다. 56년 미국 유학 중 느꼈던 미국인의 경건함과 근면함을 마틴 루터의 95개조를 통해 들여다보자는 생각이다. 미국 행정학의 뿌리개인이 이 연구는 공자 맹자를 공부하면서 그 밑바탕이 ‘역사’였다는 깨달음의 연장이기도 하다.

이교수는 이제 “신적 존재를 땅 위에서 찾는 일”을 결론적 과제로 삼는다.

그것은 친일과 군사 쿠데타로 이어진 ‘야만사회를 문명사회로 만드는 일의 시작’이기도 하다. —김지원 기자